

엔지니어상, LG정유 최혁보 팀장

산업안전 위해 노력 ... 중소기업부문 월텍정보통신 정성일 연구원

LG-Caltex 정유 최혁보 팀장이 안전환경 프로그램, 보온단열재 등으로 산업안전에 기여한 공로를, 월텍정보통신 정성일 선임연구원이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이동통신 계측기의 국산화에 성공한 업적을 각각 인정받았다.

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산업계 우수 엔지니어를 선발해 시상하는 <이달의 엔지니어상> 3월 수상자로 LG-Caltex 정유(주) 최혁보(43) 팀장과 (주)월텍정보통신 통신연구소 정성일(33) 선임연구원을 각각 선정했다.



최혁보 팀장

최혁보 팀장은 제조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압력용 기류 4500기, 회전기계류 5000기, 저장탱크류 300기 및 총 연장 약 5000km 배관의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으며, 1999년 7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여수공장의 안전환경진단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총 5만2851개의 결함을 찾아내 제거하고 설비를 개선함으로써 무재해 사업장 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엔지니어 및 운전원들에게 안전환경진단 기술교육을 실시해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수차례의 세미나 및 Workshop을 통해 사례 및 진단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인근 산업단지를 비롯한 국내의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했다.

장치배관 설비에 쓰이는 단열재의 내구성 저하로 인한 누수문제는 발수 성능 96% 이상의 보온단열재 개발을 통해 해결했으며, 고온·고압의 열교환기 129기의 Gasket 누출을 방지한 새로운 설계의 Gasket과 기존 Packing의 단점을 개선·개발한 VOC Packing(휘발성유기화합물 패킹)을 도입해 안전·환경·보건 문제를 해결하는 등 산업안전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중소기업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주)월텍정보통신 정성일 책임연구원은 통신 계측기의 핵심 개발기술인 DSP 처리 기술과 CDMA 단말기 및 기지국 모뎀 처리기술 등 고난이도의 정밀 기술을 요구하는 계측기 개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이동통신 계측기의 국산화를 이룩했다.

한편, 이달의 엔지니어상은 매달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문에서 1명씩 선정되며, 과기부 장관상과 트로피, 그리고 1000만원씩의 포상금을 받는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 03/ 21>